

# 30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촉구

### 결성 30주년 전교교사대회 교단 민주화 등 변화 이끌어 교육 정치화 논란 해소 과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올해로 결성 30주년을 맞았다. 전교조는 1989년 5월 28일 결성 이후 10년 만에 불법단체에서 합법노조가 됐지만 재차 법외노조 통보를 받는 등 곡절을 겪고 있다.

법외노조 취소와 해직자 복직이라는 현안 해결은 물론 '교육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성과 뒤에 따라 붙은 '교육 정치화' 논란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전교조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중각역 인근에서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촛불혁명을 계승한다는 문제인 정부가 지금까지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며 "법외노조 상태가 계속된다면 정치 논리의 허상에 빠진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사대회가 끝난 뒤에도

참가자들은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해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해직자 일직 복직을 청와대가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가 30년 전 꾸었던 꿈은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와 현실이 됐으며, 참교육은 교실수업 혁신과 혁신학교로 결실을 보고 있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지난 30년 역사 속 수많은 참교사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전교조 역사를 정당히 평가하고 명예 회복에 정부가 나서달라는 게 그들의 요구다.

이밖에 전교조는 새로운 30년 새로운 교육체제를 결의하기도 했다. 미래에 저당 잡혀 현재의 행복을 유예하는 교육을 강요하지 않고, 몰아치는 경쟁 체제 틈 속에서 모두가 평등한 '숨 쉬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쟁교육 타파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힘을 보장받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가르침과 배움이 삶의 이정표와 일치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전교조의 전신인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는 1987년 6월 항쟁 직후 민주화 분위기 속에 그 해 9월 출범했다. 법 개정을 통한 합법적인 노조 결성을 꿈꿨으나, 노태우 대통령이 노동조합법 개

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절됐다.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았던 전교협은 1989년 '참교육'을 강령으로 제시하며 전교조를 결성했다. 정부의 불법단체 규정 아래 주요 관련자 구속과 전교조 탈퇴를 거부한 교사 1500여 명 해직 등의 고초가 가해졌다.

그러다 한국이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면서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시작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10월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토대로 1999년 1월 국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같은 해 7월 발효되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됐다.

문제는 '부당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전교조 조항에서 시작됐다. 교원노조법은 해직자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예외적으로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교원으로 간주하는데, 전교조 규약은 이에 위배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0년과

2012년, 2013년 3차례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린다. 전교조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웠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효력정지 결정은 3차례 받아냈으나 분안소송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졌다. 대법원 판결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전교조의 가장 큰 공로로는 권위주의적 교육현장을 민주화한 것으로 꼽힌다. 촛불 문화를 되찾은 것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 향상, 일제고사와 한국사 국정화 폐지, 무상급식·무상교육 실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 등 교육 현장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전교조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사회현안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거나 편향된 주장을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는 보수층의 우려와 이념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2 달뜨기 01:28  
해질 19:38 달짐 12:37

### 하루종일 비

비 내리고 바람 강하게 불겠다.

광주	비	18/22	보성	비	16/20
목포	비	18/20	순천	비	18/22
여수	비	18/20	영광	비	18/20
나주	비	18/20	진도	비	18/22
완도	비	19/22	전주	비	18/22
구례	비	16/22	군산	비	17/19
강진	비	18/21	남원	비	17/22
해남	비	18/21	흑산도	비	17/19
장성	비	17/21			



###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남동~남	1.5~3.0	북서~북	1.0~3.0
남부 앞바다	남동~남	2.0~4.0	북서~북	1.5~3.0
남해 앞바다	남동~남	1.0~3.0	남서~서	1.5~3.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동~남	2.0~3.0	남~남서	2.0~4.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동~남	2.0~4.0	남서~서	2.0~4.0

### ◇ 생활지수

관심

식중독

보통

자외선

좋음

미세먼지

###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0:34	07:53
여수	14:13	20:14
	09:52	02:59
	21:24	15:41

### ◇ 주간 날씨

28(화)	29(수)	30(목)	31(금)	6/1(토)	2(일)	3(월)
☀	☀	☀	☁	☀	☀	☀
13/26	14/28	15/27	16/27	15/28	16/29	17/30

## 오늘 20~60mm 비... 당분간 무더위 주춤

광주·전남은 27일 하루종일 비가 내리다 밤부터 서서히 그치겠다. 30도 이상의 무더위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저기압 영향으로 27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새벽부터 비가 오다 밤에는 그치겠으며, 28일에는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26일 예보했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18도, 전남 16~19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22도, 전남 20~23도로 전남보다 4~7도 정도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전남 예상강수량은 20~60mm 내

외로,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80mm 이상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26일 오후 3시를 기해 완도·고흥·여수에 호우예비특보를 내렸다.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13도, 전남 10~16도로 평년보다 1~3도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광주 26도, 전남 23~26도로 평년과 비슷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27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키 구라모토 공연 '환상의 협연' 광주일보가 지난 24일 주최한 콘서트 '진심'에서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가 파르렛과 협연 무대를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일지(플루트), 김지윤(바이올린), 유키 구라모토, 이윤하(첼로), 강신일(클라리넷) ▶ 관련기사 16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일회용품·플라스틱 없는 광주세계수영대회' 광주환경연합·시의회 간담회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시의회는 "27일 오전 10시 광주시의회 1층 행복나눔 드림실에서 '일회용품·플라스틱 없는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자원순환사회연대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이번 간담회는 오는 7월에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친환경 국제행사 운영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다.

좌장은 김용집 광주시의원이, 기조발제는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맡는다. 광주시 자원순환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

원본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수돗물시민네트워크, 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시 새마을회,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대표적인 친환경 국제행사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해양경찰청 바다의 날 맞아 전국 연안지역 정화 활동

해양경찰청은 "오는 31일 제24회 바다의 날을 맞아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국 연안에서 정화활동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에는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와 각 지역 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다. 또 해양경찰 특공대 구조대가 바닷속 폐그물·타이어 등 각종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수거한다. 해경청은 또 해양환경 사진전시회·해양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연안 정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해양환경 정화활동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A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흰이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660㎡, 건평: 83㎡, 매매가: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